

## **\*\*“남아공 교민백일장 2020” 당선작\*\***

이 번 교민백일장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.

초등부            15명

중고등부        6명

일반부           19명

총 40명이 응모해 주셨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심사에는 현재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“시마을” 동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

모쪼록 코로나 조심하시고, 책은 12월 중에 남아공에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\*\*\*\*\*

1. 심사위원: “시마을([www.feelpoem.com](http://www.feelpoem.com))동인 3명(최 정신 회장/허 영숙 총무/장 승규 시인)

2. 심사기준: 공모주제에의 적합성과 문장의 완성도

3. 심사결과:

**\*초등부:**

**장원- 부끄럼쟁이/김 민영(초등부)**

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개념이 잘 관통하고 있다.

**가작- 내 그림자/김 시우(초등부)**

넌 나고 난 너야. 사물에 대한 관조와 깊은 애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.

**- 아침 낮 저녁/박 민국(초등부)**

시어와 형식에 중복이 심하지만, 다른 소재를 통하여 동일 개념을 찾아내고 있다

**\*중고등부:**

**장원- 이웃집 내 고양이/이 예인(중고등부)**

코로나 덕분에 친해진 이웃집 고양이와의 교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. 문장력 좋다.

**가작- 한밤중 이상한 소리/김 서진(중고등부)**

코로나 속에서 느끼는 불안한 심정의 표현이 섬세하다

**\*일반부:**

**장원**

**- 18미터의 나눔/한 정현(일반부)**

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부분이 감동적이다. 수필적이고, 문장력 좋다.

**가작:**

**- 청첩장/김 혜령(일반부)**

오래 기다린 결혼식인데 코로나때문에 제대로 못 치르지만,

그럼에도 희망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.

**- 일상을 잃고 보금자리를 얻다/안 수현(일반부)**

코로나로 인해 새로이 발견하게 된 보금자리를 통한 가족애를 잘 그렸다

**- 산책/박 선희(일반부)**

봉쇄된 시간에 아이들에게 갖던 힘들다는 마음이, 산책을 통해 문득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의 귀함에 대한 깨달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.

**- 가족과 같이 지내야 되는 시간총량의 법칙/이 권철(일반부)**

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가족간 유대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인상적이다

**\*책이름 공모: 당선작 없음**